

## 참고 8.

### 최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안정화 노력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기관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참가 금융기관의 결제이행용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 안정화 노력을 기울였다.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 금융기관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은행, 증권회사 등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다.

점검대상으로는 참가기관 결제불이행 및 비상상황 시 업무지속 관련 운영기관의 리스크 관리,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현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글로벌 증시 급락, 단기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증권회사 유동성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ELS 증거금 동향, 매입약정에 따른 ABCP 인수 부담, 자금조달 사정 등 유동성리스크 유발요인도 수시 점검하였다.

### 지급결제시스템 점검 강화 사항

대상기관	주요 점검사항
운영기관 <sup>1)</sup>	• 참가기관 결제불이행 관련 신용·유동성 리스크 관리 • 비상상황 시 운영리스크 관리(인력 분산배치, 원격근무 실시 등)
참가기관	• 거액·소액·증권 결제시스템별 리스크 현황 • 증권회사 유동성 상황 • 한은금융망 관련 위기대응 체계 구축 현황 (백업센터 및 재해복구 단말기 설치, 인력 분산배치 등)

주: 1)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자료: 한국은행

점검 결과, 운영기관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충분한 재무자원을 보유하고, 비상상황 시 유동성 조달계획도 적절히 수립하였다. 또한 사업장 감염·폐쇄 등의 리스크도 인력 분산배치 및 원격근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기관의 경우, 결제유동성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속대기비율, 일종당좌대출,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 등이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증권회사들의 유동성리스크도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결제리스크 현황

(%, 십억원)

구분	리스크 관리지표	확산 이전		확산 이후		
		1월	2월 <sup>1)</sup>	3월 <sup>2)</sup>	4월	5월 <sup>3)</sup>
거액결제 시스템 (한은 금융망)	마감시간대집중률 <sup>4)</sup>	59.4	56.5	59.1	54.8	54.5
	신속대기비율 <sup>5)</sup>	23.1	22.4	26.3	23.2	21.4
	일종순당좌대출금액	574	417	626	907	542
소액결제 시스템	순이체한도 <sup>6)</sup> 최대소진율 평균	15.1	13.7	14.9	15.1	15.9
	장외시장 분리결제 비중					
증권결제 시스템	기관간RP	6.3	7.4	5.3	5.8	6.8
	장외채권	2.3	3.2	1.6	1.6	1.4

주: 1) 2월 1~22일  
2) 2월 23일~3월31일  
3) 5월 1~22일  
4) 일별 평균 기준  
5) 신속대기발생금액/총액결제금액  
6) 참가기관 간 미결제 순채무액의 일종한도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2020년 2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염·폐쇄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한은금융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동 지침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구축(백업센터 및 재해복구 단말기 설치, 인력 분산배치 등) 현황을 점검하고 일부 미흡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토록 지도하였다.

### 참가 금융기관의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관련 부담 완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포인트 인하(70%→50%)하고 당초의 인상 일정<sup>1)</sup>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였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금액이 2020년 3월 30일 기준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담보여력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조정<sup>1)</sup>

구분	20.4월	8월	21년	22년	23년	24년
기준	70	80	90	100	100	100
변경 후	50	50	70	80	90	100

주: 1) 2021년 이후는 매년 8월 조정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인정 범위도 기존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에서 공공기관 발행채권, 은행채권 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였다.

####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범위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sup>1)</sup>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좌동)
-	일반 은행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공공기관(9개) <sup>2)</sup> 발행채권

주: 1) 2020년 5월 25일~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자료: 한국은행

###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부문의 국제기준 제정 및 글로벌 협력 의제 논의 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의 회원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응한 국제 논의에 참여<sup>2)</sup>하고 주요 중앙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동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중 각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대응 현황 및 장애발생 사례, 지급결제 동향 등을 수시로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지급결제 행태 변화 등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1) 한국은행은 2018년 12월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준수하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하였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현황 점검 및 정보공유를 위해 총 4회(4월 1일, 4월 8일, 4월 30일, 5월 26일)에 걸쳐 BIS 주최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